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41:21-29  
 2026년 6월 14일 오전 11시

## 누가 미래를 말할 수 있는가

< 주역 도우소서 >

이사야는 오래전에 예루살렘의 몰락을 예언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앞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사 3:8).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고, 입술로는 불순종을 말했으며, 삶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은 약 150년 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불타 사라졌으며, 수많은 백성이 포로가 되어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길고 고단한 여정 끝에 포로들이 마침내 바벨론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벨론 북쪽의 관문인 ‘이슈타르 문’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과 풍요의 여신 이슈타르에게 바친 이 거대한 성문은 높이가 12미터가 넘는 장엄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질푸른 유약 벽돌로 빛나는 성문 위에는 사자와 황소, 그리고 용의 형상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자는 이슈타르를, 황소는 비의 신 아다르를, 용은 바벨론의 최고신 마르둑을 상징했습니다. 그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영광과 신들의 권세를 과시하는 거대한 선언문과도 같았습니다.

이슈타르 문을 지나면 왕궁으로 이어지는 ‘행렬로(Processional Way)’가 펼쳐졌습니다. 폭이 20미터가 넘는 대로 양편에는 수백 마리의 사자 부조가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치 포로들에게 바벨론의 위엄을 침묵 속에 선포하는 듯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웅장했습니다. 신전 지구 한가운데에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거대한 ‘지구라트’가 서 있었습니다. 높이가 약 90 미터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바벨론의 탑은 인간이 신들에게 다가가려는 야망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대한 궁전 가운데 하나였던 ‘느부갓네살 왕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 1.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끝없이 이어지는 성벽과 궁전, 신전과 탑들은 작은 나라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규모였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불타버린 성전, 무너진 다윗 왕조와 끝없이 이어지는 포로 행렬은 마치 여호와께서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바벨론은 찬란한 영광의 절정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성벽과 웅장한 신전, 세계를 호령하는 군대와 막대한 부는 마르둑의 승리를 증명하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들은 나라가 망한 이유를 자신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인지를 밝히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둑을 비롯한 모든 이방의 신들은 결코 참 신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인의 손길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고, 못으로 단단히 고정하지 않으면 흔들리고 넘어지는 물건들일 뿐입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메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땀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사 41:7). 인간이 만든 것을 다시 인간이 섬기는 모습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손에서 만들어진 우상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형상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려는 시도는 마치 태양과 촛불을 같은

빛으로 평가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사 40:18).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친히 우상들을 법정으로 불러내십니다. 마치 재판장이 피고를 심문하듯, 그들이 정말 신이라면 그 증거를 내놓아 보라고 요구하십니다. “나 여호와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사 41:21).

하나님께서서는 우상들에게 과거를 설명해 보라고, 그리고 미래를 예언해 보라고 도전하십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22 절). 만일 그들이 참으로 신이라면 역사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알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정은 곧 침묵으로 가득 찹니다. 우상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지나간 일을 설명할 수도 없고, 다가올 일을 예고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바꿀 능력도, 세상을 다스릴 권세도 없습니다.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23 절).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의 정체는 드러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무력한 형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은 헛된 것을 붙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으로 가증한 일입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24 절). 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이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말씀하시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도 않은 한 사람을 미리 지목하여 소개하십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제국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도 그 권세를 흔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끝을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 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25 절).

## 2. 미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정해진 미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그 인물의 이름까지 밝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사 44:28 상반절). 그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였습니다. 이 예언이 선포될 당시 고레스는 아직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고레스가 역사에 등장하였을 때에도 고레스는 바벨론 북쪽에 자리 잡은 강대국 메대(메디아)의 속국인 바사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동쪽에 위치한 바사는 국력과 영토, 영향력 어느 면에서도 메대와 비교하기 어려운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세상의 예상을 뒤엎으셨습니다. 고레스는 메대를 정복하고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고레스는 정복자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는 메대의 귀족들을 계속 등용하였고, 메대의 군대를 흡수하였으며, 메대의 행정 제도와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바사와 메대는 언어와 문화, 인종이 거의 동일하였기에 고레스는 메대를 파괴하기보다 계승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페르시아를 단순히 바사라고 부르지 않고 "메대와 바사"라고 함께 부릅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단 6:8). 흥미로운 사실은 바사가 메대를 정복하였음에도 성경이 종종 메대를 먼저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메대가 오랫동안 지역의 중심 세력이었기 때문이며, 페르시아 역시 자신을 메대의 후계 국가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이사야의 예언을 더욱 놀랍게 만듭니다. 메대는 바벨론의 북쪽에 있었고, 바사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북방에서 오게 하며"와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라는 예언은 고레스를 통하여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실 일은 단지 바벨론의 멸망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놀라운 미래를 미리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회복과 무너진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사 44:28 하반절).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만 해도 이 말씀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는 반드시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는 놀랍게도 포로들에게 귀환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스 1:3). 바벨론 포로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단순히 귀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고레스는 다윗 왕가의 후손인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였고, 스룹바벨은 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귀환 공동체를 이끌었습니다. 오랜 세월 타향살이를 하던 포로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새”(스 3:2).

주변 민족들의 적대감과 위협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스 3:3). 귀환 공동체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고, 월삭과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스 3:5).

### 3.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

귀환한 지 약 2년이 지나자 비로소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이 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십 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스 3:8). 총독 스룹바벨은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였고, 솔로몬 성전 건축 때와 마찬가지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구해 왔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스 3:7). 시돈과 두로의 기술자들이 레바논 산지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다를 통해 욥바 항구까지 운반하였고, 귀환한 백성들은 그 목재를 다시 예루살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백향목과 각종 건축 자재가 준비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웅장한 건물일수록 먼저 견고한 기초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기초를 놓지만, 고대에는 크고 단단한 돌을 다듬어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스룹바벨은 채석장에서 큰 돌을 떼내고, 석수들이 정성껏 다듬어 마침내 무너졌던 성전 터 위에 새로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단순한 건축 공사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스 3:10).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므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스 3:11). 70년 포로 생활 끝에 다시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은 감정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또 다른 이유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스 3:12). 어떤 이들은 기뻐 울었고, 어떤 이들은 옛 영광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감사의 함성과 통곡이 뒤섞여 울려 퍼지는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깊은 감동을 주는 사건인지 보여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는 이처럼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상들과 인간이 만든 거짓 신들은 미래를 알지도 못하고, 역사를 움직이지도 못하며,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아시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미래도, 건강의 미래도, 자녀의 미래도, 교회의 미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래를 예측하려 애쓰지만 성도는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